

창원대 국책사업 선정으로 '새로운 도약'

'지역혁신 사업' 지원대학 선정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 국책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대학교는 지난 7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도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 10개 플랫폼이 참여해 단일형은 경남과 충북, 복수형은 광주·전남 등 3개 지역혁신 플랫폼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범부처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이 지역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은 창원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49개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플랫폼을 구성해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공동체' 3개 핵심분야에서 선정됐다. 특히 창원대는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분야의 중심대학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와의 협업 노력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영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발전 시켜 나가고, 경남의 3개 핵심분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창원대가 지역혁신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연구실' 선정 쾌거

창원대학교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실'(N-LAB)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 소재하는 국책연구소와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 12개 연구실과 2단계 13개 연구실을 국가연구실로 선정, 총 25개 분야(국책연구소 20개, 대학연구실 5개)에서 국가연구실을 지정했다.

이 중에서 대학 국가연구실은 창원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창원대·서울대·KAIST·한양대·전남대)이 선정됐으며, 창원대 신소재공학부 기능성 나노구조재료 연구실이 '국가연구실'(N-LAB)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가연구실 책임교수인 창원대 신소재공학과 정연길 교수는 "이번 국가연구실 지정을 발판으로 향후 선진국 주도형 기술 분야인 고온 부품 소재 분야에서 핵심·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을 극대화하는 등 고온 부품 허브(Hub) 역할을 하는 기능성 나노구조재료 연구실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1 이호영 창원대학교 총장 2 국가연구실(N-LAB)에 선정된 창원대 신소재공학과 기능성 나노구조재료 연구실 연구원들 3 창원대학교 전경

